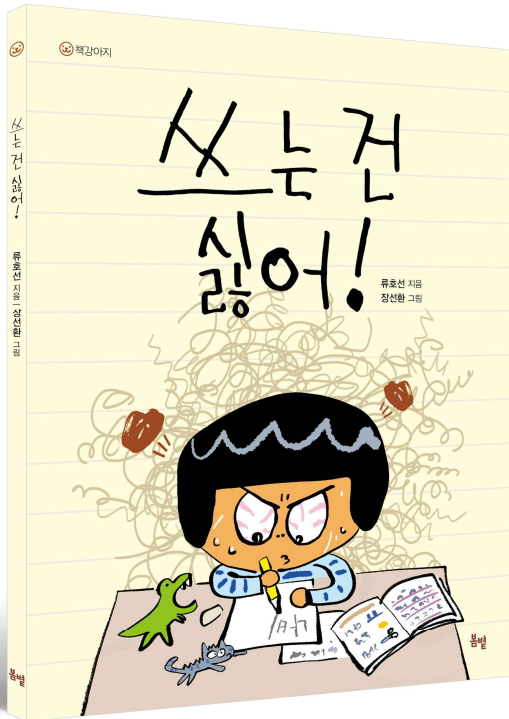


쓰는 건 싫어!



류호선 지음, 장선환 그림

활자보다 영상을 먼저 익히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읽기와 쓰기가 왜 필요한지, 아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이다. 읽는 건 어찌어찌 익혔는데, 쓰는 건 읽기보다 백배 더 힘들다. 글자가 마음대로 써지지도 않는다. 쓰기를 포기하고 싶을 무렵, 똑같은 내용이라도 말이란 글이란 느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진짜 중요한 건 때때로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엄마 말을 듣고 토리는 쓰기를 잘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한 글을 꼭 쓰기로 마음먹는다. 글쓰기의 중요함을 전하는 이야기

주제 읽기와 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 알기

권장 차시 11차시

대상 학년 1~2학년

관련 주제어 읽기, 쓰기, 한글, 자음, 말놀이, 마음 전하기

국어

교육 과정 연계

- [2국02-04]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 [2국03-01] 글자를 바르게 쓴다.
- [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 [2국03-05] 쓰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쓰는 태도를 지닌다.
-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 [2국05-03]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작성 창원 도계초등학교 신동영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때때로 글로 쓰는 게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

토리는 읽기와 쓰기가 너무 싫다. 그런데 엄마는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읽기, 쓰기를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토리는 간판을 보며 글자를 읽고 자음 글자 모양마다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게 된다. 엄마는 읽기를 그럭저럭 잘하게 된 토리에게 이제는 쓰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 토리에게 쓰는 건 읽기보다 백배 더 힘들다. 쓰기를 포기하고 싶을 무렵, 토리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말과 글은 느낌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쓰기를 잘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한 걸 글로 꼭 쓰기로 마음먹는다. 글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처럼 아이들은 읽기와 쓰기가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학습 목표

- 책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며 인물의 마음과 처지를 짐작하여 나의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다.
- 한글 자모의 이름과 모양을 다양한 놀이와 말놀이를 하면서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다.
- 읽기와 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즐겨 읽고 쓰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 수업 준비

『쓰는 건 싫어!』는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가 주인공이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토리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온작품 읽기를 하며 읽기와 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고 읽기와 쓰기를 즐겨 할 수 있도록 교안을 계획하였다. 저학년의 경우 온작품 읽기가 처음인 경우가 많기에 소리 내어 읽기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각 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하며 나의 경험이나 느낌을 꺼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한글 자모와 관련된 놀이를 곁들여 한글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게 하여 읽고 쓰는 것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 마음을 담은 쪽지를 쓰는 활동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고 글로 쓰는 것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책을 읽은 뒤 그림일기 쓰기를 하며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고 손글씨전을 열어 쓰기의 재미를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뒷이야기를 상상하며 아이들이 토리의 앞날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며 마무리한다. 왜 읽고 쓰기를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읽고 쓰는 것을 흥미를 느끼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준비물 감정 카드, 색연필, 사인펜, 편지지, 붙임 종이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표지 보고 제목 맞추기 문고 답하기 놀이하기 차례 살펴보기	1
읽는 중	읽기 방법 정하기 -읽기 방법 정하고 함께 읽기	2, 3
	<1장, 2장 읽기> 내용 파악하기 경험 나누기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기 등장인물 마음 읽기 -등장인물의 감정 알아보기	
	<3장 읽기> 내용 파악하기 자음 이름 바꾸기 자음자의 모양과 소리 탐구하기 (선택 활동) 자음자 놀이하기 1. 자음자 귓속말하기 2. 자음자 모양 완성하기 3. 자음자 그림 그리기 4. 자음자 끝말잇기	4, 5
	<4장, 5장 읽기> 내용 파악하기 경험 나누기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기 하고 싶은 말 전하기(핫시팅) -주인공에게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말하기	6, 7
	<6장, 7장 읽기> 내용 파악하기 경험 나누기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기 마음을 담아 글쓰기 -대상을 정해 마음을 전하는 편지 쓰기	8, 9
읽은 후	그림일기 쓰기 -인상 깊은 장면을 골라 토리의 입장에서 그림일기 쓰기 손글씨 쓰기 -제목을 손글씨로 쓰고 친구의 작품 감상하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토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0, 11

읽기 전

1. 표지 보고 제목 맞추기

■ 표지 일부분을 보고 제목 유추하기

-이 그림은 표지 일부분이에요. 다섯 개의 그림을 보고 제목을 맞춰 보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제목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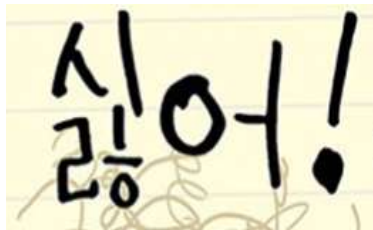
예) 머리가 아픈 날 : 머리가 아플 때를 표현한 그림 같아요.

-세 번째 그림까지 봤어요. 제목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나비가 싫어' 같아요. 아이가 나비를 쓰면서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공부가 싫어'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예요.
'쓰기가 싫어' 같아요. 글 쓰는 것이 싫어서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Tip. 표지 일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제목을 유추하도록 한다. 제목을 유추하기 쉬운 단서에서 어려운 단서로 단계적으로 보여주면 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틀린 답도 정답에 가깝거나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친구의 말을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도한다.

2. 묻고 답하기 놀이하기

■ 내 생각 넣어 묻고 답하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쓰는 건 싫어』입니다.
- 이 책은 류효선 작가의 작품이며, 봄별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 주인공은 '쓰는 건 싫어!'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쓰는 것이 왜 싫다고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친구들이 '쓰는 건 왜 싫어?'라고 물으면 주인공이 되어 싫은 이유를 말해 봅시다.

예) 전체 : 쓰는 건 왜 싫어?

개인 : 재미가 없으니까 / 팔이 아프니까 / 쓸 게 없으니까 / 지루하니까 등

Tip. 전체 학생이 '쓰는 건 싫어!'라고 물으면 한 명의 학생씩 돌아가며 이유를 말하는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발표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3. 차례 살펴보기

■ 차례 읽기

- 소리 내어 다 같이 차례를 읽어 봅시다.
- 표지와 차례를 보고 어떤 이야기일지 생각해 봅시다.

Tip. 각 장의 제목이 의문문이다.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면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나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읽는 중

1. 읽기 방법 정하기

■ 소리 내어 읽기

- 약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생각하며 <약국에서 이름이 꼭 필요할까요?>를 읽어 봅시다. 먼저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로는 선생님 소리를 듣고 눈으로 글자를 따라 읽으세요.

Tip. 저학년을 대상으로 온작품 읽기를 할 때는 주로 소리 내어 읽기 방법으로 읽는다. 글의 도입 부분은 이야기의 집중도를 높이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생님이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도입 부분이 지나면 선생님과 학생 또는 짝과 함께 한 문장씩 번갈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대화글이 많으므로 등장인물의 역할을 정해 큰따옴표가 있는 부분은 그 역할에 해당하는 학생이 읽고 나머지 부분은 교사나 다른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2. 1, 2장 내용 파악하기

■ 1, 2장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 약국에 간 엄마는 왜 창피하다고 했나요?
예) 토리가 이름을 쓰지 못해서요.
- 토리가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좋은 점도 모르면서 무작정 읽고 써 보라고 하니깐요.
- 토리는 읽기가 싫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어른들이 자꾸만 읽는 것을 시키니 싫다고 했어요.
- 토리는 왜 '가요'가 '가요'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 데 엄마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예) 글자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 토리가 엄마와 함께 글자 읽는 연습을하기로 마음먹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내년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3. 1, 2장 경험 나누기

■ 경험 이야기하기

- 약국 아저씨는 토리에게 “내년에 학교 가려면 부지런히 써야겠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있었나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예) 초등학생이 되니까 혼자 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자는 게 무서운데 혼자 자야 한다고 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예) 젓가락질을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을 못 하면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연습했어요. 힘들었어요.

예) 글을 잘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책 읽기 연습을 했는데 읽기가 재미있었어요.

4. 1, 2장 등장인물 마음 읽기

■ 등장인물의 감정 알아보기

- 선생님이 읽어주는 부분을 듣고 토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감정 카드를 살펴보고 표정을 관찰한 뒤 어떤 감정인지 말해 봅시다.

예시)

선생님이 읽어주는 부분	감정
“내년에 학교 가려면 부지런히 써야겠네!” “그러게 말이에요. 창피해 죽겠어요.” (10쪽)	불쾌한 창피한
“일곱 살인데 아직도 한글을 잘 못 읽고 못 쓰면 안 되는데…….”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아저씨는 세 살 때부터 읽고 써서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13쪽)	짜증나는 답답한
“토리아, 자꾸 딴생각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내년에 학교 가지!”(21쪽)	귀찮은 지친
유치원에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엄청 칭찬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토리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21쪽)	긴장된 걱정스러운
여기저기 팔을 내밀고 있는 나무와도, 작은 개미 친구들과도 그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글자를 빨리 읽어야 하니까요? (22쪽)	답답한 슬픈

Tip. 1, 2장은 토리가 약국 아저씨, 엄마와 대화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장면과 대화가 많다. 글 일부분을 다시 읽으며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토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표정 그리거나 표정 짓기를 한 뒤 어떤 감정인지 설명할 수도 있다. 시중에 파는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다.

5. 3장 내용 파악하기

■ 3장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 토리가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된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예) 자음 글자는 모양에 따라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 토리는 글자를 읽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요?
 예) 몰랐던 이름을 소리 내어 불러 주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했어요.

6. 3장 자음 이름 바꾸기

■ 자음 이름 바꿔 읽기

- 토리는 쌍둥이처럼 두 개가 붙은 아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싶다고 했나요?
 예) ‘쌍둥이 기억’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 토리처럼 자음 이름을 지어 봅시다.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지 말해 봅시다.
- 예) 나란히 기억. ‘앞으로나란히’ 할 때처럼 앞을 보고 있어서요.
어깨동무 기억. 자음끼리 어깨동무하는 것 같아요.
붙어있는 기억, 자음 두 개가 딱 붙어있어서요.
힘센 기억, 자음이 한 개일 때보다 두 개가 있으니 힘이 세질 것 같아요.
거울 기억, 거울을 보는 것처럼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 친구들이 바꾼 자음 이름을 함께 읽어 봅시다.

7. 3장 자음자의 모양과 소리 탐구하기

■ 자음자의 모양 탐구하기

- 토리는 세모 같기도 하고, 다리 모양 같기도 한 시옷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자음자 가운데 어떤 모양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이유와 함께 말해 봅시다.
- 예) ㄱ(기역). 내 이름을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자음이기 때문이에요.
ㅇ(이응), 자음 중에서 제일 쓰기가 쉬워서 좋아요.
ㅎ(히읇), 히읇은 동생이 웃을 때 눈 모양같이 보여서 기분이 좋아요.

■ 자음자의 소리 탐구하기

- 토리는 ‘시옷’ 소리를 낼 때는 입속에서 바람이 세모 모양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옷 시옷 시옷 시옷’ 하면서 바람 놀이를 해 봤어요.
- 내가 좋아하는 자음자를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입속에서 바람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나요?
예) ‘기역’ 소리를 낼 때는 입속에서 바람이 ‘기’할 때는 세모 모양이 작게 ‘역’할 때는 세모 모양이 크게 나와요.
‘이응’ 소리를 낼 때는 입속에서 바람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나와요.
‘히읇’ 소리를 낼 때는 입속에서 바람이 옆으로 납작한 동그라미가 나와요.
-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 자음자를 소리 내어 읽으며 바람 놀이를 해 봅시다. 바람이 손에 닿을 때 어떤 모양인지 느껴 봅시다.
- 거울을 보고 자음자를 소리 내어 읽으며 내 입 모양을 관찰합니다. 입 모양을 보며 어떤 모양인지 느껴 봅시다.

8. 3장 자음자 놀이하기

■ 자음자 귓속말하기 놀이하기

- 자음자 귓속말하기 놀이를 해 봅시다.

<활동 방법>

- ① 선생님이 자음자 카드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 ② 맨 앞줄에 있는 학생들만 나와서 선생님이 고른 자음자 카드를 본다.
- ③ 앞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는다.
- ④ 선생님이 신호를 주면 동시에 뒷사람에게 귓속말로 자음자 이름을 말한다.
- ⑤ 맨 뒷사람이 자음자를 들고 선생님 자리에 있는 종이에 자음자를 써서 선생님에게 낸다.

- ⑥ 가장 먼저 나와 자음자를 바르게 쓴 모둠이 이긴다.
- ⑦ 학생들이 자음자를 쓴 종이를 모두 칠판에 붙인다.
- ⑧ 놀이가 끝나면 모두 함께 놀이의 답이 되는 자음자의 이름을 말하고 허공에 써 본다.

■ 자음자 모양 완성하기 놀이하기

- ‘ㄱ’자 모양을 완성하는 놀이를 해 봅시다.

<활동 방법>

- ① ‘ㄱ’부터 ‘ㄱ’까지의 자음자 가운데 9개의 자음자를 자유롭게 써넣는다.
- ②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자음자 이름을 한 개씩 말한다.
- ③ 친구가 말한 자음자를 색연필로 색칠한다.
- ④ 가장 먼저 자음자 ‘ㄱ’ 모양으로 색칠한 사람이 “ㄱ자 완성!”이라고 외친다.
- ⑤ 모든 학생이 “ㄱ자 완성!”을 외칠 때까지 놀이를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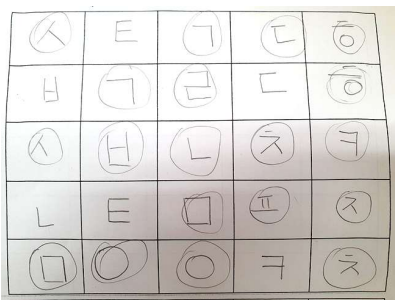
Tip. 3×3표에서는 ‘ㄴ’, ‘ㄷ’, ‘ㄹ’자 모양 완성하기 놀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4×4, 5×5표로 확장해 ‘ㅂ’, ‘ㅌ’자 모양 완성하기 놀이도 할 수 있다. 자음자를 읽고 그 이름을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자음자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학생과 자음자를 익혔어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 모두에게 유용하다.

■ 자음자 그림 그리기

- 자음자를 떠올리며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활동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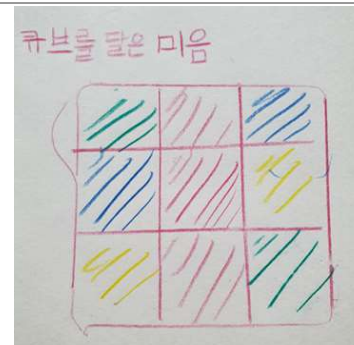
- ① 자신이 좋아하는 자음자를 정한다.
- ② 자음자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물이나 물건 등을 떠올리면서 자음자 그림을 그린다.



자음자 모양 완성하기



자음자 그림 그리기 1



자음자 그림 그리기 2

■ 자음자 끝말잇기

- 끝말잇기 놀이를 해 봅시다.

<활동 방법>

- ① 시작할 사람을 가위 바위 보로 정한다.
- ② 이긴 사람이 떠오르는 자음자를 말한다.
예) 거미야, 너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미란다.
- ③ 그다음 사람이 앞서 사람이 말한 자음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한다.
예) 고릴라야. 너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고릴라란다.
- ④ 계속해서 말하지 못하면 진다.
- ⑤ 그다음 끝말잇기는 진 사람부터 시작한다.

9. 4. 5장 내용 파악하기

■ 4. 5장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 토리가 술술 읽기 시작하자 엄마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나요?
예) 쓰기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 토리가 쓰기를 못하자 엄마는 왜 걱정되었나요?
예) 토리가 학교에 가서 이름도 못 쓰는 아이가 될 것 같아서요.
- 쓰기를 싫어하는 토리에게 엄마는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이 무엇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나요?
예) 마음이에요.

10. 4. 5장 경험 나누기

■ 경험 이야기하기

- 반듯하게 글을 쓰고 싶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토리는 속상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예) 열심히 글씨를 썼는데 또박또박 쓰지 않는다고 엄마에게 야단을 맞아 속상했어요.
예) 연필 바르게 잡는 것이 힘든데 글씨까지 반듯하게 쓰려고 하니 짜증이 났어요.
예) 글씨가 예쁘지 않다고 선생님께서 다시 쓰라고 했어요. 다시 쓰는 데 정말 힘들었어요.

11. 4. 5장 하고 싶은 말 전하기(핫시팅)

- 토리에게 궁금한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려 봅시다. 토리를 우리 반으로 초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전해 봅시다.
예) 글씨를 못 쓴다고 엄마에게 야단맞았을 때 기분이 어땠니?
학교에서 이름을 쓰지 못하면 정말 그림을 그려 놓을 거야?
엄마가 가부터 하까지 쓰라고 했는데 정말 열 번 썼어?
글씨 쓰기를 왜 혼자 연습하기로 했어?
누구에게 글을 써서 마음을 전하고 싶어?

12. 6, 7장 내용 파악하기

■ 6, 7장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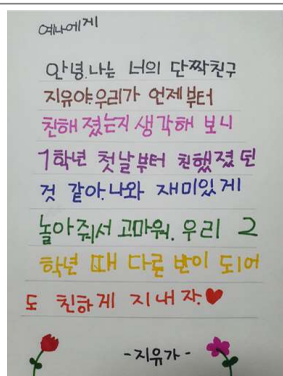
- 토리는 깜깜한 밤에 일어나 글을 쓰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정말 중요한 말을 꼭 남겨야 하니까요.
- 토리가 남긴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요?
예) 산타 할아버지에게 토리 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전해달라는 것이예요.
- 토리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나요?
예)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토리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 토리는 산타할아버지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요?
예) 산타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편지를 썼어요.
- 토리는 편지를 다 쓴 뒤 어떤 기분이었나요?
예) 뿌듯했어요. 벅찼어요. 엄마가 걱정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토리는 왜 그런 기분을 느꼈을까요?
예) 글자를 왜 써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글을 써서 토리의 마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썼기 때문이에요.
글을 쓸 줄 아니 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 마음에 와 닿는 문장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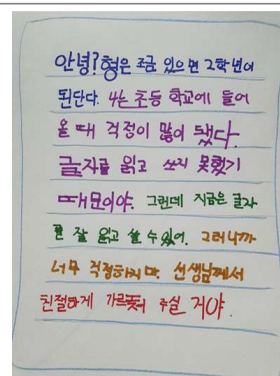
- 토리는 쓴 편지를 다시 읽어 보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과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 봅시다.
예) 저는 할머니를 못 만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요. 왜냐하면 저도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화장실에서 똥도 제가 닦아요. 왜냐하면 똥 이야기가 웃기고 할머니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귀엽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토리가 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고 왠지 슬픈 것 같아요.

■ 마음을 담아 글쓰기

- 말을 하는 것보다 글을 쓰면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나요? 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봅시다.



친한 친구에게 쓴 편지



초등학교에 입학할 동생에게 쓴 편지

읽은 후

1. 그림일기 쓰기

■ 인상 깊은 장면을 정해 그림일기 쓰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골라 토리의 입장에서 그림일기를 쓰고 발표해 봅시다.

-토리가 되어 일기를 써 보니 어떤가요?

예) 토리가 글씨 쓰기 때문에 엄마에게 야단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토리가 편지를 쓰고 뿌듯해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Tip. 토리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쓴다면 인물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은 그림만 그려도 된다. 일기 쓰기는 말하기로 대신하거나 말한 것을 교사가 대신 받아서 쓸 수 있다.

<예시>

★ 인상 깊은 장면 : 토리에게 한글 쓰기를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엄마

일요일 아침부터 엄마가 한글 쓰기를 공부하라고 했다. 나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부터 하까지 열 번이나 쓰라고 했다. 왜 열 번이나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엄마가 그냥 쓰라고 하며 화를 냈다.

★ 인상 깊은 장면 : 깜깜한 밤에 산타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토리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기 위해 밤에 일어났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편지 쓰기는 성공했다. 다 쓰고 나니 뿌듯했다. 글자가 좀 삐뚤빼뚤했지만 괜찮다. 처음 써 본 편지지만 잘 쓴 것 같아 기분이 좋다.

2. 우리 반 손글씨전

■ 누가 제목 글자를 썼을까?



■ 제목 글자 쓰기

-제목 글자 '쓰는 건 싫어!'는 초등학교 1학년 심규현 어린이가 썼어요. 내가 제목 글자를 쓴다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종이에 연습하고 붙임 종이에 제목 글자를 써 봅시다.

■ 제목 글자 감상하기

-친구들이 쓴 제목 글자를 감상하고 어떤 느낌인지, 어떤 부분이 인상적인지 발표해 봅시다.

Tip. 봄별출판사 블로그에 소개된 심규현 어린이 이야기를 함께 읽은 뒤 제목 글자 쓰기를 할 수 있다. 비슷한 나이의 어린이가 썼다는 사실에 친밀감을 느끼고 제목 글자 쓰기 활동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손글씨전을 열어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느낌이나 인상적인 부분을 말하도록 한다. 붙임 종이에 손글씨를 쓴 다음 표지에 붙여 내가 쓴 제목 글씨로 표지를 디자인할 수 있다.

3. 뒷이야기 상상하기

■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말하기

- 토리가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상상해 보고 발표해 봅시다.

예) 아침에 일어나보니 엄마와 아빠가 토리가 쓴 편지를 보고 토리를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을 받은 토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도 토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어요.

토리의 꿈속에 할머니가 나타나 산타할아버지가 토리가 쓴 편지를 잘 전달해줬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토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토리는 읽고 쓰기를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1학년이 된 토리는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뒷이야기 상상하기 예시 질문>

- 엄마와 아빠가 토리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을까요?
- 토리 편지는 할머니에게 잘 도착했을까요?
- 자고 일어난 토리에게는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 토리는 언제든지 쓰고 싶은 게 생긴다면 척척 쓸 수 있을까?

Tip. 글을 읽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며 말하는 것을 '예측하기'라고 한다. 책을 읽은 후 뒷이야기를 상상하기 위해 학생은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고 사고를 확장하며 인물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다. 뒷이야기 상상하기를 위해 교사는 예시처럼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